

# PHOTO & IMAGING 2018

## 그리고 SEOUL VR·AR EXPO 2018



서울국제사진영상전(이하 P&I)이 지난 4월 19일~22일까지 개최되었다. 파나소닉, 올림푸스, 니콘 같은 대형 업체가 빠지고 소니와 캐논뿐이라는 우려 속에 개최된 이번 P&I에서는 그럼에도 사진전과 다양한 부대행사로 그 명맥을 이어갔다. 사진 관련 다양한 물품과 기타 액세서리 등 사진에 조금이라도 흥미가 있다면 결코 지나칠 수 없는 P&I는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와 제품 세일, 관련 세미나 등으로 그래도 꼭 방문해야 할 전시로 생각된다. '미러리스의 공습'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각사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미러리스 카메라를 집중 홍보하고 있었다. 4K 지원, 자유로운 AF,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자사 또는 서드파티의 신형 렌즈들이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특히 올해는 3층에 서울 VR·AR 엑스포가 동시 개최되어 가족 단위의 많은 관람객의 흥미를 높였다.

### Canon

캐논은 기존의 풀프레임 카메라와 함께 'EOS M50' 4K 미러리스 신제품을 선보였다. M50은 2,410만 화소의 APS-C 타입 센서를 탑재하고, 최신 영상 엔진인 DIGIC



8과 듀얼 픽셀 CMOS AF 기능, 4K 동영상과 초당 약 10매의 고속 촬영을 비롯해 인물의 눈에 초점을 맞추는 Eye Detection AF와 약 88%(가로)×100%(세로)의 더욱 넓어진 AF 영역 등 캐논의 최신 기능으로 무장한 미러리스 카메라이다. 'SPEEDLITE 470EX-AI'는 피사체와의 거리와 천장 높이를 스스로 판단해 가장 알맞은 바운스 촬영 각도가 되도록 헤드 방향을 자동 조절하는 자동 바운스(AI.B) 기능을 갖춘 신개념 외장 플래시로, 두 개의 CPU 보드를 채용하여 완전자동모드와 반자동 모드로 동작하며 47의 가이드 넘버를 지원하는 풍부한 광량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제품 체험존과 더불어 캐논은 특설부스인 '1인 미디어 Live 스튜디오'를 통해 인플루언서의 방송을 캐논 제품으로 촬영하여 유튜브 채널에 송출하였고, '캐논아카데미 원포인트 레슨'과 '캐논아카데미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캐논만의 감성이 가득한 강의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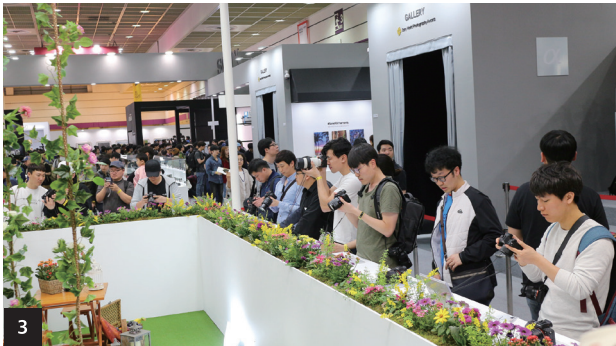
1. 캐논 5D 시리즈 및 기존 제품 체험존 2. 세계 최초 자동 바운스 기능을 탑재한 '470EX-AI' 3. EOS M50 체험존  
4. 4K 미러리스 EOS M50 5. 1인 미디어 Live 스튜디오 부스 6. 캐논아카데미 원포인트 레슨 세미나



## SONY

소니는 부스 전면에 세미나 존과 함께 G Master 렌즈 존과 스튜디오 촬영존, 4K 갤러리존, RX 존, 풀라인업 존 등으로 소니의 최신 기술과 카메라, 렌즈 등을 선보였다. 이번 소니 전시의 핵심은 당연히 풀프레임 미러리스 a7 시리즈였다. 작년 플래그십 a9으로 미러리스의 강자로 자리매김한 소니는 얼마 전 고화소의 a7R 시리즈에 이어 a7 시리즈를 출시했다. 동급의 기종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인 a7 시리즈는 2,420만 화소에 이면조사형 풀프레임 센서를 채택, 이미지 화질의 개선을 이끌었고, 693포인트의 위상차 AF와 425포인트의 콘트라스트 AF로 a9에 버금가는 AF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S-log3와 HLG의 로그 감마를 통해 4K HDR의 다이내믹 레인지의 영상을 기록할 수 있으며, 인물 촬영에서 빛을 발하는 Eye-AF 기능을 비롯해 듀얼 메모리 슬롯과 USB-C 지원, a9과 같은 배터리를 채택하여 사용시간을 연장한 점

등 가격대비 매력적인 바디 성능으로 출시 전부터 인기가 높았다. 이러한 소니의 최신 바디와 렌즈, 관련 세미나 등 관람객이 충분히 만족할만한 전시였다.



1. 10인의 사진작가가 강의한 특별 세미나 2. 소니 부스  
3. 스튜디오 촬영 체험 및 뒤쪽의 갤러리 존 4,5. 풀프레임 미러리스 a7 III  
6. 다양한 카메라와 렌즈, 액세서리가 전시된 폴라인업 존



## 그 밖의 볼거리

탐론은 출시 전인 소니 FE 마운트의 '28-75mm F/2.8 Di III RXD'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550g의 경량과 0.19m의 최단 촬영 거리, 초정밀 저소음 스테핑 드라이브(RXD) 등의 기능으로 사전 신청만 100여 명이 넘는다고 한다. 시그마 역시 소니의 E 마운트의 아트 시리즈 렌즈를 선보였으며, 국내 삼양 역시 50, 35, 14mm의 AF EE 마운트 모델을 선보였다. 벤큐는 전문가용 라인업인 포토그래퍼를 위한 SW와 디자이너를 위한 PD 시리즈를 선보였는데, SW320은 4K UHD HDR을 지원하고,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과 AdobeRGB 99%, DCI-P3 87% 등 높은 성능을 보였다. 3축 짐벌에 4K 카메라를 부착하여 손쉽게 가족용 4K 촬영을 할 수 있는 REMOVU의 K1 캠코더 제품도 340g의 가벼운 무게와 편안한 그립감으로 촬영의 편의를 제공했다. 다양한 액자와 조명 소품, 가방, 삼각대 등 촬영 장비가 가득한 주변부에는 서울포토 2018, 2018 SLRCLUB 사진전 등이



출시 예정인 28-75mm F/2.8 FE Mount



REMOVU의 K1 가정용 캠코더

열렸고, 포토콘테스트, 인생사진관, 이벤트 존 등 부대행사는 참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인기가 있었다.



관람객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이벤트 부스



사진 관련 다양한 제품 전시 부스

## SEOUL VR·AR EXPO 2018



코엑스 3층 C홀에서는 VR/AR 엑스포가 열려 VR과 AR 기반의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장이 되었다. P&I 관람객이라면 바로 입장이 가능했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지피엠,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서틴플로어 등 다양한 기관 및 업체에서 자사의 VR/AR 기기를 전시 및 시연하

였다. 입장하고 놀라운 것은 VR 체험에 맞도록 전체 조명이 어두웠다는 점이다. 또한, 20~30대 및 가족 단위의 관람객으로 참석 연력이 P&I보다는 젊어진 느낌이었다. 콘텐츠를 보면 단순 게임과 어드벤처가 많았는데 아직 시작 단계의 시장이다 보니, 복잡한 내용보다는 VR/AR이 무엇인지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듯 보였고, 관련 세미나와 컨퍼런스로 VR/AR 동향 파악에도 신경을 쓴 전시였다. 📺

